

최근 국제자원시장 및 해외자원개발 투자 동향과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김 대 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정책연구부

2000년 대 중반 이후 국제 에너지 및 자원시장은 거대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자원 수요 증가와 함께, 자원 공급 확대가 지연되며 급격한 가격상승과 자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중국 등 대규모 자원수요국가들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 OPEC 회원국 등 자원보유국들의 경우 자원개발에 따른 경제적 편익 제고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공포된 2004년 이후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었으며, '08년 신 정부의 출범과 함께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원고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제 자원시장 변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동향과 우리나라의 국내 해외자원개발 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최근 자원수급 구조의 변화와 가격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07년 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문제 해결과 해외자원개발 투자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으로 2007년 8월 정부가 확정 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명시된 중장기 해외자원개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추진대책 등을 정리 소개하였다.

최근의 국제 에너지 및 자원 시장 동향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가격은 2003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석유, 유연탄 등 에너지자원과 철광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금속광물자원의 경우 '02년 대비 '07년 가격이 5배 내외 까지 급등하였다(표 1). 이러한 가격상승원인으로는 세계적인 광물자원 수요 급증, 해상 수송비용의 급증, 미국 달러화 약세 및 이로 인한 국제자원시장으로의 투기자금 가세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자원수요 급증이 이러한 가격 강세를 가져온 가장 중요하고도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즉, 2001년 이후 2006년까지의 중국의 광종별 년 평균 자원

표 1. 최근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가격 변화

구 분	석유 (\$/bbl)	유연탄 (US\$/톤)	동 (US\$/톤)	아연 (US\$/톤)	니켈 (US\$/톤)	우라늄 (\$/lb)
'02 평균(A)	23.88	28.85	1,588	779	6,772	9.88
'07 12월(B)	85.66	84.06	6,671	4,403	34,547	72.00
상승율(B/A)	359%	291%	420%	565%	510%	729%
'08. 5. 13	117.90	145.06	8,410	2,289	26,775	65

자료) World Metal Statistics, Each Month,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수요증가율을 살펴보면, 철광석이 21.7%(세계 평균 10.4%), 아연 13.2%(세계평균 3.0%), 니켈이 21.7%(세계평균 3.0%) 등으로 세계 평균 수요증가율을 광종별로 2배 내지 7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세계 자원소비량 중 중국의 점유율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0년 대 들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먼저, 철광석의 경우 2006년 중국의 세계 소비량 중 점유비는 무려 51.8%로 세계 소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석탄의 경우 38.6%에 이르고 있다. 비철금속 소비의 중국 점유비는 아연의 경우 28.7%, 동 21.2%로 상당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석유의 경우 '06년 현재 중국 점유비가 8.9%로 타 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의 소득 증가 시 석유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편의성이 높은 에너지 선호가 현실화 될 경우 그 비율은 크게 향상될 잠재력이 있으며 타 자원과 같이 그 비율이 30% 내외로 높아질 경

우 세계 석유시장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수요 증가 외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 공급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80년대 중반 이후 '03년 까지 장기간 지속된 석유 및 광물자원의 가격은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중소 자원개발 기업의 도산 및 폐광을 유발하였고, 이는 인해 석유 및 광물자원개발 기업의 인수합병을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03년 이후 자원 수요가 증가하며 합병된 대규모 자원개발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는 최근의 가격상승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외에도 1조US\$ 내외로 추정되는 투기자본의 자원시장 유입, 해상 수송료의 상승, 달러화 약세 등 최근의 자원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대형 외, 2007).

이렇듯 공급 불안과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지자 선진국 및 거대 개발도상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이다. 먼저 자원소비

표 2. 세계 자원소비량 중 중국 점유율

광종	2001	2005	2006
석유	6.3%	8.4%	8.9%
석탄	28.6%	37.1%	38.6%
철광석	29.8%	45.9%	51.8%
동	15.7%	21.8%	21.2%
아연	17.2%	28.5%	28.7%
니켈	7.5%	15.5%	16.3%

의 중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 한 정상자원외교 강화, 3대 국영석유사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유전확보, 국부펀드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무차별적인 자원확보 전략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인도, 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들의 경우 자국의 다국적 자원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지역 유전 및 광물 자원 광구 선점과 자원공급 지배력 확보를 위한 정치·외교적 지원 확대와 해외 국부펀드의 자국내 자원개발 기업 지분인수 규제 정책 등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이다(산업자원부, 2007).

를, 금속광물자원의 9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자원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자원민족주의나 자원무기화 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어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국가 생존과 경제운영에 직결되어 있다(산업자원부, 2007).

자원확보 방법으로는 해외자원개발 이외에도 장기공급계약, 선물시장의 활용, 비축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자원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위험 관리 능력을 확보할 경우 생산원가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편익, 자원개발 플랜트, 건설, 유통, 금융, 보험 등 연관 산업 진출기회의 확보 등 다양한 편익 유발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어 가장 유용한 자원 확보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및 성과 분석

해외자원개발 추진 현황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중요성

에너지·광물자원의 경우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이 결정되는 일반재화로서 취급되기도 하나 산업과 국민 경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전략적 재화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수급이 통제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자원소유권의 국유화, 비축, 해외자원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경우 97%

1977년 산-안토니오 우라늄광산 개발 사업 진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투자는 '07년 말 까지 총 555개 사업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38%인 209개가 석유·가스 개발사업이고 62%인 246개가 유연탄·광물자원 개발사업이다. '07년 말 현재 진행사업 수는 286개 사업이며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이 총 123개로 32여개국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유연탄·광물자원개발사업이 165개로 37개국에서 진행 중이다(표 3).

표 3.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 수 현황('07년 말 기준)

구 분	석유/가스		유연탄/일반광물	
	진출국	사업	진출국	사업
진행사업	32	123	37	163
- 생산	17	34	10	33
- 개발	8	12	21	58
- 탐사(조사)	25	77	21	72
종료사업	37	86	28	83
총 진출사업	50	209	46	246

표 4.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현황(단위 : 백만US\$)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합계
석유/가스	총투자	3,569	437	561	642	953	1,901	2,550	10,612
	에특투자	779	84	118	159	136	184	332	1,790
유연탄/ 광물	총투자	1,687	66	91	131	154	186	673	2,988
	에특투자	458	45	49	46	48	53	68	757

'07년말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액은 총 136억\$며, 석유·가스개발투자사업에 106억\$, 유연탄·광물자원개발 투자에 30억\$가 투자되었으며 정부(지식경제부)가 에너지자원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용자액은 25.5억\$로 전체투자의 18.7%에 이르고 있다(표 4). 한편, 해외자원개발 투자 회수액은 총투자액의 81.3%인 110.6억\$에 이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통한 자원

확보량 및 자주개발실적은 다음 표 5와 같다. 먼저 석유의 경우 확보가채매장량은 947백만 bbl로 '07년 국내 수입량 규모를 조금 초과하는 수준이며, 가스의 경우 '07년 수입량의 약 6.1배에 이르고 있으나, 자주개발률의 경우 유연탄 38.0%를 제외하고는 석유, 가스, 우라늄 등의 자주개발률은 10%이하의 매우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표 5. 주요광종 자주개발 현황 ('06년 말 기준)

구 분	석유 (백만bbl)	가스 (LNG천톤)	유연탄 (백만톤)	철광 (백만톤)	우라늄 (U톤)	동 (천톤)	아연 (천톤)	니켈 (천톤)
확보가채 매장량	947	152,619	1,178	107	-	22.3	29.7	357.5
총수입량	873	24,765	82	46	3,016	941	787	89
자주개발량 ¹⁾	26	2,259	31	5	-	43.9	262	23.1
자주개발율	3.0%	9.1%	38.0%	10.7%	-	4.7%	33.2%	26.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요 성과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77년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규모는 '97년 년 간 8억\$ 정도의 투자 규모를 보이다가 '98년 외환위기 이후 '02년까지 년 간 5억\$ 내외로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자원가격의 상승세가 시작된 '03년 이후부터 투자규모가 다시 확대되어 '05년 15.4억\$, '06년 21억\$로 증가하였으며, '07년 32.2억\$로 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규모가 대형화되기 시작하였다. 과거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사업의 규모는 소형광구 중심이었으나, '05년 이후 서캄차트카 석유광구(추정매장량 37억bbl), 암바토비 니켈광구(니켈 매장량 125백

1) 자주개발량 = 투자광구 생산량 × 국내 기업 지분율

만톤) 등 대형광구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었다.

셋째, 국내 기업이 운영권자로 참여하는 주도적 참여사업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형태는 대부분 단순 지분참여 형태였는데 최근 들어 운영권 확보를 통한 투자형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운영권 보유 유전개발 사업 수는 '02년 14개에서 '06년 34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후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유사한 경제규모나 자원소비를 갖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상태로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 정책은 단기성과 위주의 산발적 개별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탐사사업과 개발·생산사업과의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예를 들면 세계 주요 석유메이저 기업의 경우 개발·생산사업의 비중이 60% 수준이나 석유공사의 경우 33%('06년 기준)에 불과하여 투자규모에 비해 자주개발율이 낮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의 안정 확보가 중요한 최우선적 국가 아젠다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같은 에너지 전략 논의 기구 및 산업자원부 에너지 전담 차관제와 같은 정부 내 조직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사업지원 및 부처간 연계가 부족하여 자원개발 투자의 전략적, 집중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국내 자원개발 기업의 역량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규모가 크다는 석유공사의 경우도 총자산규모가 21억\$로 석유개발기업 세계 100위권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예산, 인력, 조직 등에 대한 통제로 시장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넷째, 해외자원개발 추진에 필요한 자금, 기술, 인력 등 기반 역량이 크게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투자재원의 경우 정부의 예특예산 확대, 자원개발펀드 도입 등 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급증하며 총 투자액 중 정부용자의 비중이 '02년 25.8%에서 '07년 12.4%로 크게 감소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조건이 양호한 지역에서의 자원고갈이 진행되어, 심해저 및 극한지 등에 대한 자원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원개발 기술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전문인력 또한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 까지 3,880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변중무 외, 2007) 자원개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배경

이상에서와 같이 해외자원 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의 정책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부는 '70년 대 말부터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매 3년마다 10년 단위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산업자원부에서는 2001년과 2004년 제1차 및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2007년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을 수립하고 8월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이를 확정하였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4월 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협동연구기관으로 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자원개발 공기업, 민간기업, 금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 본 계획에서는 석유가스 등 8대 전략광종을 선정하여 자주개발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서 제도개선, 자금지원 확대,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자원정보시스

템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재정확보 대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다.

해외자원개발 목표 및 정책 방향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명시된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은 우선 국내 경제 및 산업적 중요성을 반영한 전략광종의 선정과, 전략광종을 대상으로 하여 자주개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6).

먼저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는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유연탄, 철, 동, 아연, 희토류광물 등 8대 광종을 전략광종으로 선정하였는데, 3차 계획에서는 디스플레이제품이 과거 CRT에서 LCD로 변경됨에 따라 희토류광물을 제외하고, 이를 니켈로 대체하였다. 이들 8대 광종의 자주개발 목표는 표 6과 같이 설정되었

표 6. 전략광종의 자주개발 목표

광종	2007년		2009년		2013년		2016년	
	자주개발율	자주개발량	자주개발율	자주개발량	자주개발율	자주개발량	자주개발율	자주개발량
석유 (백만bbl)	3.0%	26	6%	48	17%	146	24%	213
천연가스 (백만톤)	9.1%	2.3	14%	4	31%	11	39%	13
유연탄 (백만톤)	38.0%	31	42%	40	49%	49	50%	54
우라늄 (톤U)	-	-	-	-	2%	100	15%	900
철광 (백만톤)	10.7%	5	15%	7	27%	15	30%	16
동광 (천톤)	4.7%	44	7%	77	23%	268	35%	450
아연광 (천톤)	33.2%	262	29%	254	37%	376	40%	456
니켈 (천톤)	26.1%	23	15%	19	29%	50	30%	61

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서의 특징은 과거 10년의 자주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매 5년을 중간 점검목표로 설정한 것과 달리, 2009년과 2013년에 각각 중간 점검목표를 설정하고 2016년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최근의 급격한 자원 가격 상승과 공급불안 요인을 고려하여 2차 기본계획에서 보다 자주개발목표를 상향 설정하여 주요 자원의 자급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은 우선 해외자원개발을 최우선적 국가 아젠다로 지속 추진해 나갈 것과 국내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을 과거 직접적 자금지원에서 자원개발 기반이 되는 인프라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 등으로 설정하였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원개발 세부추진 전략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의 정비

첫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해외자원개발 정책 추진체계 구성을 제시하였다. 현재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의장:대통령)>에서 범국가적인 추진전략 논의 및 수립이 이루어지면 이를 추진할 실무적 정책논의 및 조정기구로서 <자원개발지원협의회(위원장:지식경제부장관)>를 법정기구화하여 운영할 것을 계획으로 명시하였다.

둘째, 자원외교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 및 협조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발원조(ODA) 자금인 유상원조(EDCF)자금과 무상원조(KOICA)자금 운용 시 해외자원개발 전략과 연계 강화를 위해 부처간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으며, 지식경

제부에서도 <자원개발 대외협력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원개발 협력 여건 조성 및 자원보유국 주요 인사와 네트워킹을 강화토록 하였다.

셋째,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먼저 석유공사의 경우 출자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한 후 30만b/d생산규모 확보 시 개발자회사 분리 및 민자 유치를 통한 독자 성장체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2020년 까지 세계 20위권의 광업메이저로의 성장을 위한 자본, 자산, 기술역량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하였다.

넷째,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의 구축 방안으로는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정책건의를 위한 <자원개발협회>를 신설할 것과 (2008년 3월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신설되었음)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및 정보제공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자원개발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전략적 자원개발 추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는 첫째, 체계적인 지역별 진출 전략 수립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즉, 자원개발 유망진출지역을 5대 권역(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대양주, 중남미, 중동)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토록 하였다.

둘째, 8대 전략광종별로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석유·가스의 경우 현재 탐사광구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투자 패턴을 개발·생산 광구를 포함한 균형된 전략수립과, 기타 6대 전략광종의 경우도 국내외 시장 및 수급여건과 투자환경을 고려한 대책 수립을 마련토록 하였다.

셋째, 전략적 자원외교 추진 대책으로 대통령이 수반이 되는 정상외교, 국무총리가 수반이 되는 고위급 사절단,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반이 되는 자원협력위원회 등 각각의 자원외교 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외교지원 방안 구축과 함께, 25개 국가와 구성되어 있는 자원협력위원회의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원보유국에 대한 경제·산업지원과 자원확보를 연계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사업의 확산을 위해서 국가별, 지역별 T/F 구성을 통한 전략 수립과 프로젝트별 전담회사 설립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과 동반진출 대상사업의 범위를 에너지산업 이외의 조선, 건설,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확대시키는 대책 마련을 추진토록 하였다.

해외자원개발 지원시스템의 혁신

해외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혁신방안으로는 자금, 인력, 기술, 정보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투자재원의 안정적 조달 방안으로 우선 에특회계 중 자원개발예산을 '07년 9,213억원에서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자원개발펀드의 확대 시행, 수출입은행의 자원개발 금융지원 확대 및 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자원개발 자금으로의 활용을 유도토록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개발 용자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용자 심사·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의 보강과 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용자사업 관리 기능을 점진적으로 분리해 나가도록 하였다.

셋째,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대책으로 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제도를 개선하여 탐사광구 투자사업까지 보험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것과 구상권 행사 면제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추진토록 하였다.

넷째, 자원개발 인력양성 대책으로 대학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원개발특성화 대학> 지정 및 운영사업 추진과 함께 <자원개발전문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토록 하였다. 또한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자원개발아카데미>, <자원개발단기강좌>, <사내교육(In-house) 프로그램>의 전문화 및 활성화와 함께 자원개발기업 종사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도입 추진도 명시하였다.

다섯째, 기술개발 대책으로 석유, 광물자원, 미래자원별로 구분하여 기술개발 목표를 설정함과 함께, 핵심 기반기술 및 미래기술의 경우 연구기관 및 대학을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의 경우 기업과 연구주체와의 매칭펀드를 통해 이를 시행토록 추진체계를 제시하였으며, 공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R&D 비용으로 투자토록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 정보 지원의 경우 현재 기관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원개발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과, 특히 지질자원연의 세계 석유분지에 대한 D/B구축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지원을 강화하고 석유·가스자원개발투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결론

2003년 이후 국제 자원가격은 세계 경제 활황과 중국 등 거대 개발도상국의 자원수요 확대로 상승세로 돌변하였으며, 현재까지 가격 강세와 함께 공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7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 수요와 비교하여 그 절대량 및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07년 8월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해외자원 자주개발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범정부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수립 추진체계의 개선,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자원외교의 강화, 전략적 자원개발 추진체계 마련 및 기업지원을 위한 자금, 전문인력, 기술개발, 정보지원 강화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토록 하였다. 이들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은 4.2%('06년)에서 28%('16년)로, 6대 광물자원의 자주개발율은 18.7%('06년)에서 38%('16년)로 증가하여 국제 자원위기에 대한 대응능력과 국가 자원안보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기업,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대형, 이경한, 김지환, 이현복 (2007)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한광업진흥공사(2008) 2007년 해외자원개발 현황분석.
 변중무, 김대형, 김현태, 배위섭, 백환조, 이철규, 전석원, 최종근 (2007) 자원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 개발,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2007)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
 World Metal Statistics, Each Month, World Bureau of Metal Statistics.

석회석연구개발협의회 홈페이지

www.rdla.or.kr

